

“불교음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중단 차원의 미디어국 설치가 불가피하다. 또한 불교문화 출판 발전을 위해서도 중단 차원의 불교문화 시상 제도를 만들고 사찰 도서관 건립, 불서읽기 캠페인 전개 등에 힘써야 한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연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문화부는 불교문화를 음악, 미술, 공연, 문학 및 출판 등 4개로 나눠 각계 전문가를 초청,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인프라·인재양성·시장개척이 관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열어



조계종 문화부 주최로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사진은 23일 열린 문화출판분야 간담회.

■ 불교음악분야

△채지성(국악방송 본부장)

법회음악에 사용되는 음악과 대중교포 음악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불교의 의식곡들중에는 전승가와 일본 노래의 영향을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중단 차원에서 창작 찬불가를 작사 작곡할 때에는 모방지침안을 마련해 일정 형식을 제대로 갖춘 찬불가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으면 한다.

△박성규(제니스 불교음악원 원장)

불교포교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이다. 오페라를 한 작품 하려고 하면 출연자중 불자 전공인들을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 그래서 어떤때에는 타종교 음악인들을 불가피하게 섭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단차원의 정식화된 문화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종민(좋은 벗 풍경소리 실장)

현재 발표된 찬불가는 1500여 곡으로 추정된다. 찬불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부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적인 코드에 부합하는 찬불가 및 찬불가수 스

타를 발굴해 대중 앞에 선보이게 하는 것이 대중화의 지름길인 것 같다. 이외에도 인재양성과 교육, 문화포교 등을 위한 미디어국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텐츠 공모전 ‘불교독서감상문 공모’ ‘불교성지순례기행문 공모’ ‘템플스테이 체험수기 공모’ 등 중단 차원에서 작은 규모라도 좋은 작품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

△윤창화(민족사 대표)

불교출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사찰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사찰에 도서관이 있는 곳은 잠실 불광사, 합천 해인사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굳이 출판 발전이 아니라도 지역포교는 물론 신도교육 차원에서도 사찰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은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불자 가정마다 108권 불서 읽기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또한 개인과 소수 단체의 힘이 모자르면 인프라를 구축해 대형 불서서점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외에도 불교출판상 제정과 각 사찰의 불서판매 공간 확대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류지호(불광출판사 사장)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한 출판사들의 연구 및 논의 방안이 마련되는 장이 많아져야 한다. 또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한 공동 홍보 마케팅을 해야 한다. 갈수록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의 매출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일반인들이 불교출판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공동행사의 기획 및 기존 행사들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나 각 사찰의 창건 기념행사등도 결합해 출판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찬불가, 찬송가 등에 영향 받아...지침서 마련 시급

양질의 출판물 위해 발간비 지원 제도 등 마련 절실

△임재필(목포대 음대 강사)

재능 있는 불교 음악인을 지원·육성하는 창작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불교음악인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 또한 가곡의 발표 같은 행사를 개최해 일반 곡들과 불교적인 곡들을 함께 연주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전문적인 음악단 체(합창단, 실내악단, 오케스트라 등)를 만들어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제공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각 문화장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두 마찬가지로 지원 확대와 인정을 통해 불교문화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공광근(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불교문학을 통한 대중 포교의 대표적 단체인 현대불교문인협회에 대한 종단의 적절한 지원 확대와 인정을 통해 불교문인을 양성해 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출판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양질의 불교출판 원고 공모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는 발간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문학출판분야

△장영우(동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불교문예대상제도’ ‘불교철학 등 콘



“보컬과 음악적으로 하나된 느낌”

불자 가수 웅산 세번째 앨범 ‘에스터데이’ 발매

“21세기 재즈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걸 세 앨범에 담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재즈 중에서도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목소리의 이쿠스틱한 노래들이 많지요.”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능동한 허스키보이스, 활화산 같은 열정을 발산해온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34)이 1년 6개월만에 3번째 앨범 ‘에스터데이’를 내놨다. 블루스적 색채가 강한 ‘더

블루스’로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표현한 데 이어 이번에는 팝, 발라드, 블루스, 포크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풀어냈다. 웅산은 이번 앨범에서 13곡 가운데 7곡을 작곡했다.

“‘에스터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다 지쳐 놓아주는 슬픈 꿈 내용이예요. 그날 아침 피아노에 앉아서 담담하게 풀어간 곡이죠. 15분 만에 만든 곡이예요. 그 전에는 재즈

나 블루스 등 어떤 장르에 묶여 노래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번 앨범에서는 곡의 느낌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노래했지요. 변신은 항상 흥미롭잖아요.”

웅산은 “이번 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보컬과 음악적인 면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웅산(雄山)은 18세에 비구니가 되겠다고 들어간 충북 단양 구인사의 무안스님이 지어준 법명. 2년간 절에 머물다, 음악에 대한 강한 열망 때문에 하산했다.

웅산은 9월 1일 오후 8시 30분부터 대하로 천년동안도에서 콘서트를 연다. (02)743-5555 김주일 기자

걸어가는 부처님?

‘라오스 불상 특별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9월 29일까지

라오스 불상들 중 하나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원서동 박물관 제 4전시실에서 ‘불교의 나라 라오스 불상 특별전’을 개최한다. 주요 전시작품은 걸어가는 부처의 모습을 표현한 목조 불입상(木造佛立像) 등 50여 점의 불상이다.

걸어가는 모습의 부처상은 태국의 스코타이 양식 불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라오스 불교예술이 태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로 16-18세기에 조각된 라오스의 불교미술품은 여러 차례에 걸친 타이의 침입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동시에 타이의 아우타야와 스코타이 왕조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는 계기가 됐다.

동으로 만든 부처 좌상은 정수리 위에 상투를 쓴 것 같은 기둥이 붙어있다. 이 부분을 계주라고 하는데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불상의 계주는 기둥형태로 뾰족하게 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불상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무른 재질의 사암, 흙을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조각수법도 단순하다. 그러나 이 불상들은 각 지방의 다양한 사람들



삼존불 입상.

이 각각의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의 얼굴 등 생김새가 천차만별인 것이 흥미롭다.

매주 금·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전시설명회가 있다. 한편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9·10월 매주 토요일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흙쭉, 냇쭉, 나만의 부처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766-6000 김주일 기자

몽골·티베트 인쇄문화 한눈에

원주 명주사에서 9월 16일까지

원주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9월 16일까지 티베트·몽골 고판화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판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티베트와 몽골 관련 고판화 700여점중 150여점을 선별해 벽에 건다. 그중에는 불교 탕카와 타르츠, 부적을 찍었던 원판 목판 50여

점과 그 원판으로 인출한 판화 30여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이번 특별전에서는 몽골 인쇄문화와 삽화판화를 엿볼 수 있는 티베트·몽골 고판화 서책들도 10여점 선보인다. 특히 몽골 지옥변상도 판화본은 200여장의 지옥세계가 파노라마로 전개되는 환타지 문학 삽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033)761-7885 김주일 기자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행 ⑳

설악산 봉정암

장인성 시인

산 위에 구름점점 휘둘러 있고
구름 위에 절집 한 채 다소곳해서
여기가 어디냐 물어왔더니
비구니스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깨마득한 바다를 가리키면서
저기가 해인(海印)이라 일러줍니다.



봉정암(鳳頂岩)-해발 1,244미터의 내설악 정상에 자리한 적멸보궁으로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암자. 그림: 이상백 화백

如來心地要門楞伽經 강의 안내

원조 각성 강백 콘스님 직강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을 졸업한 1기-2기 스님들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자 禪敎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본 선교연구모임에서는 금번 선종의 중국 조조인 달마대사께서 2조 혜가대사께 心印을 전해줄 적에 함께 전수한 능가경 4권을 총정리한 당나라 화엄종주 현수 법장스님께서 능가현의 깊은 뜻을 밝힌 경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강백이신 각성 콘스님을 모시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포교당 및 사찰주지스님은 물론 불교학자, 제자 분들은 동참하시어 증생교포와 자기완성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 ◆ 강의시간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 강의장소 :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실 강당
- ◆ 수강료 : 6개월 25만원
- ◆ 자격 : (가) 비구, 비구니 - 법납 15년 이상,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승가대학 졸업자에 한함. (나) 재가자 -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을 졸업한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자.
- ◆ 구비서류 : 출가자 - 수행이력서 1통, 반명함사진 2매 재가자 - 이력서, 졸업증명서, 반명함 사진2매, 신도증 사본 1매
- ◆ 접수기간 : 2007년 7월 13일 - 9월 7일까지
- ◆ 입금처 : 국민은행 429102-04-031256 예금주 최재동
- ◆ 문의 및 접수처 : 02)735-1053 / 핸드폰 018-242-7070, 011-497-8018
- ◆ 서류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5-1번지 천마빌딩 905호

불교서울전문강당 동문회 禪敎연구모임 운영위원장 법경 합장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금 강 경	1교시 :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대승기신론	2교시 : 3시 30분 - 4시 40분	

- ◆ 모집대상 : 스님, 일반인 ◆ 통신생 : E-mail 통신 가능
- ◆ 모집인원 : 약간명 ◆ 학 기 : 2학기
- ◆ 개강일시 : 2007년 9월 6일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면목역, 상봉역)
- ◆ 전 화 : 02)496-3952~3

<무료 명상치료를 안내>

중풍을 제외한 모든질병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불교전문강원 임제선학원